

홈플러스 7조6800억원…MBK에 팔렸다

〈한국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주식양수도 계약

재매각 전망 등 고용불안…노조 반발
먹튀 논란·개인정보 유출 여전히 숙제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한국계 사모펀드에 팔렸다. 이로써 1997년 삼성물산에서 대구1호점으로 시작했던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테스코에 경영권을 넘긴 후 16년 만에 다시 한국 투자자의 품에 안겼다. 테스코와 한국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 컨소시엄(MBK)은 홈플러스 그룹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수금액은 42억 4000만 파운드(한화 약 7조6800억원)다. 이는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다. 홈플러스측은 주주변경에 따른 투자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먹튀논란'과 함께 '고용불안'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만만치 않은 과제도 남겼다.

●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

홈플러스는 140개 대형마트와 375개 슈퍼마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경영권을 넘긴지 16년 만에 한국계 투자자의 품으로 돌아왔다. 홈플러스는 도전적 투자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먹튀논란'과 '노조와의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뉴시스

켓, 327개 편의점을 갖춘 유통업계 공룡이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테스코의 투자여력이 부족했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홈플러스는 MBK가 자산 9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도전적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MBK는 홈플러스에 향후 2년간 1조원을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등을 거쳐 다시 매물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홈플러스 노조가 MBK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분할매각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매각에 강력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MBK는 이에 대해 임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계약에 의해 바뀌는 것은 주주일 뿐 1900만 고객과 2000여 협력회사, 7000여 테넌트 임대매장, 2만6000명의 임직원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모펀드의 특성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매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전망은 줄지 않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 유출 건 등 해결과제 산적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먼저 '먹튀논란'이다. 테스코가 이번 매각으로 수조원의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기금을 MBK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불법 판매 문제도 남아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고, 현재 형사재판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 시민·소비자단체들은 MB

K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홈플러스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1200억원이 넘는 상표·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거액의 로열티를 내고도 테스코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스포츠세단 교과서’의 진화…BMW 뉴 3시리즈 출시

스포티한 외관·편의사양 업그레이드
최고 출력 190마력…제로백 7.2초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 불리는 BMW 뉴 3시리즈가 7일 공식 출시됐다.

이 모델은 새롭게 디자인된 공기 흡입구를 통해 차체가 더 넓어 보인다.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개선했다. LED 인디케이터를 수평 형태로 통합해 다이내믹해 보인다. 헤드라이트도 풀 LED 헤드라이트로 바꿔 매력을 더했다. 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풀 LED 후미등을 통해 넓고 스포티한 외관을 강조했다.

편의사양도 다양해졌다. 스마트 오픈 기능을 적용해 키를 소지한 채 트렁크 하단부 중앙을 가볍게 발로 차면 트렁크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 조작 버튼과 송풍구, 중앙 컨트롤 패널에 크롬 디자인이 추가됐다. 센터 콘솔 역시 슬라이딩 커버가 추가돼 내부 수납의 활용도를 높였다. 총 9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하이파워 라우드스피커 사운드시스템도 적용됐다.

파워트레인도 손봤다.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을 탑재해 성능과 효율이 향상된 모델형



7일 공식 출시된 BMW 뉴3시리즈. 스포티한 외관, 다양한 편의사항, 역동적인 주행 성능으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 불리는 시리즈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BMW 이퍼섀트다이내믹스 엔진을 장착했다. 거기에 새로운 8단 스탭트로닉 변속기를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또 업그레이드 된 댐퍼, 더 단단해진 서스펜션, 정밀해진 스티어링을 통해 BMW 3시리즈만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완성했다.

뉴 320d 세단은 최고 출력 190마력과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제로백) 속도를 내는데 이전 모델보다 0.2초가 단축된 7.2초다. 뉴 3시리즈는 7가지 모델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4940만~561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텔레콤-LG전자, 스마트홈 기술개발 업무제휴

에어컨 등 IoT 연동 기술 공동개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스마트홈'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특히 중견업체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가전제조사와의 협업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두 가전회사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스마트홈의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전전시회 'IFA 2015'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LG전자와 스마트홈 서비스와 스마트가전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7일 체결했다. 양사는 LG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발표한 '스마트싱글'을 통한 기존 가전의 스마트홈 연동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8월부터 LG전자와 에어컨, 광파온,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주요 제품군 연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4월 삼성전자와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플랫폼 간 연동개발을 위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양 가전사가 자체 보유한 클라우드 서버와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버의 연동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2016년부터 국내



7일 'IFA 2015'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SK텔레콤 조영훈 스마트홈TF장(오른쪽)과 LG전자 최성호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장이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가전시장에 SK텔레콤 스마트홈 기능이 탑재된 다양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LG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스마트홈 플랫폼과의 서비스 연동에 이어 삼성전자와 가전제품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양사의 다양한 가전 제품에 'IoT@home' 플랫폼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넷마블, 8·9일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마구마구 등 8개 종목에 1500여명 참여

넷마블게임즈는 8일과 9일 양일 동안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1회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와 '제13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넷마블게임즈와 함께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는 게임의 우수한 기능성을 활용한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에는 '마구마구'와 '모두의마블',

'다함께 붕붕붕' 등 넷마블게임즈의 게임 외에 '프리스타일2', '팡야', '오렐로', 엑스박스 키넥트의 '스포츠포싱' 등 총 8개 종목에 장애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및 특수교사를 포함한 약 150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일본 및 대만의 장애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국제 장애학생 초청 e스포츠 교류전'을 최초로 열어 장애학생들이 국경과 신체의 제약을 넘어 함께 경쟁하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 체험존'과 '특수교육 정보화 컨퍼런스', '특수교육 산업 홍보전', '장애학생 바리스타관',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

김영근 기자

존위커&선즈 프라이빗 컬렉션
추석맞이 152명 특별 한정판매



제품인 '2015 에디션 레어 프루트 캐릭터'(2015 Edition Rare Fruit Character·사진)를 선보인다.

존위커&선즈 프라이빗 컬렉션은 마스터 블렌더 짐 베버리지가 매년 한가지의 특별한 풍미에 집중해 이를 컨셉트로 새로이 창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젝트다. 이번에 출시된 '2015 에디션'은 디아지오의 마스터 블렌더 짐 베버리지가 스코틀랜드의 조니워커 증류소에 저장되어 있는 900만여개의 오크통 중 '2015 에디션'의 풍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 29개의 희귀 오크통만을 엄선해 희귀한 과일 풍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명작이다. 각 병마다 1번부터 8888번까지의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152병만이 조니워커 하우스 서울을 통해 단독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015 에디션'의 소비자가격은 750ml 기준 91만원이며, 특히 한국 소비자들에게 웰드컵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2002년이나 행운의 숫자가 담긴 0777번과 같이 럭키 넘버가 새겨진 제품은 99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디아지오코리아는 추석에 맞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의 프리미엄 위스키 라인 '존위커&선즈 프라이빗 컬렉션'의 두 번째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줄어든다

금감원, 불합리 규정에 산출방식 변경

자동차 리스 계약 중도 해지시의 수수료가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남은 계약 일수가 적을수록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현재 국내 여신전문회사들은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회사가 자동차 리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부과해왔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스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규정손해금은 자동차 리스 계약 도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자동차 대

금과 이미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 내야 하는 수수료다. 중도해지수수료는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때 내는 비용이다. 앞으로는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이나 잔존일수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산출된다. 규정손해금 산정방식도 미회수원금이 아니라 잔여리스료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박상춘 여권감독국장은 "자동차 운용리스는 계약이 끝나면 자동차를 돌려주도록 하는 임대차 성격인데,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규정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잔여리스료에 잔존가치를 더해서 규정손해금을 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티몬,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개 모집

티켓몬스터는 신입 개발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웹과 모바일의 소프트웨어개발 분야다. 자격은 대졸 이공계열 전공자 중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와 경력 2년 미만 기술 입자로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30일까지 채용사이트(tmon.saramin.co.kr)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 예정. 서류 합격자

는 온라인으로 코딩테스트를 치르며, 1·2차 면접 및 자체 채용절차인 써드아이틀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합격자들은 약2개월 동안 수습 전문 기술 교육을 받고, 개인의 적성을 고려해 모바일 개발과 웹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로 정규직 직무가 배정 된다.

김영근 기자